

### “석가모니도 태어날때부터 부처님은 아니었죠”

‘부처님의...’ 펴낸 한진홍업 한갑진 회장

불서 법보시 운동에 앞장 서 온 원로 영화인 한진홍업 한갑진(81·사진) 회장이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을 펴냈다. 책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 신화적 존재나 절대자의 모습이 아닌, 역사적 인물로서의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살피고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가르침을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자는 것이다.



“생활하다 보면 행복할 때도 있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때나 우리는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찾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그 빛은 곧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이라는 스승의 참모습을 봄으로써 깨달음의 길을 한하는 용기를 심어주기 위해 이 책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한 회장은 책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에서부터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생애를 좇고 있다.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한 회장은 부처님을 초인(超人)이나 신으로 묘사한 경전 대신 좀 더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아함경> 속에서 그 참모습을 찾고 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태어났던 것처럼 부처님은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의 구도와 정진 끝에 스스로 부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무조건적인 기도로 영험을 바랄 것이 아니라 그분의 참 가르침을 알아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국제신문사 정치부장을 역임한 그는 1966년 대양 영화제작사를, 70년 한진홍업을 설립해 영화 ‘팔만대장경’과 ‘김의 전쟁’ 등을 제작하고 ‘로키’ ‘백야’ ‘스팅’ 등의 외화를 수입해 거둬 흥행에 성공하면서 ‘영화계의 대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던 72년 죽음을 앞둔 아버지에게 <반야심경>을 독송해주며 불교에 빠지게 된 그는 이후 불교서적 법보시 운동을 펼치기 시작했다. 국내 불교서적뿐 아니라 영화 일로 외국 출장을 갈 때마다 불교관련 책을 구해 읽었고 <알기 쉬운 불교>(80), <알기 쉬운 불경집>(81), <인도와 불교>(85), <새천년을 헤쳐갈 불교>(2000) 등 수십 권의 책을 펴내 전국의 사찰과 신원단체에 보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배움, 즉 보시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불자들의 가장 큰 보시는 물론 바라밀을 성취하는 것이지만, 그 길로 이끌어 주는 법보시도 그에 못지 않은 소중한 배움이 아닐까요?”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한갑진 지음 한진출판사 | 1만원

# 초기 경전 이해의 나침반

## ‘청정도론’ 국내 첫 번역... 5월18일 송헌클럽서 출간 기념 강연회도



상좌부(남방불교) 이해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청정도론(위수디마가, Visuddhimagga)>의 팔리어 원문이 국내 최초로 번역되어 나왔다. <청정도론>은 부처님의 직설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경장(經藏)인 4부 니까야(디가니까야, 맛지마니까야, 상윳따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에 대한 주석서다. 425년 경 인도출신의 붓다고사(Buddhaghosa) 스님이 편찬한 이 책은 방대한 불교교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하고 반복해서 나타나는 가르침이나 문장들을 계·정·혜의 주제 하에 일목요연하게 해설하여 초기불교에 대한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이처럼 <청정도론>이 초기 경전 해설의 기초인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문장의 까다로움으로 인해 번역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대림 스님. 사진=고영배 기자

### 팔리어 원문...3권으로 원역 원문 600쪽 주석 1000여개 상세히 달아 이해 도와

음으로써 좀 더 부처님의 원음(原音)에 가까이 다가서려 노력했다.

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각목 스님은 발간사에서 “<청정도론>은 팔리어 삼장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노동입니다. <청정도론>에는 팔리어 삼장에 나타나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와 슬어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팔리어 사전에 등장하는 단어가 대략 1만3천개 정도인데 <청정도론>에 등장하는 단어만도 약 1

만1천여 개에 달한다”며 “본원에서는 <청정도론> 발간을 계기로 대부분의 팔리어 어휘와 슬어를 통일하게 됐으며 조만간 이를 책으로 출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책을 번역한 대림 스님은 인도 뭍대학 산스크리트어과에서 석사와 박사과정을 수료했고, <청정도론>의 주석서인 <빠라맛타 만주사> 연구로 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2년 전 ‘팔리 삼장의 한글 완역’을 설립취지로 초기불전연구원을 개원하고 초기불경 번역에 매진하고 있다. 대림 스님은 이 책을 읽어야 할 사람으로 불교학자와 수행자, 위빠사나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불자들을 꼽는다. 초기경전이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청정도론>은 부처님 법을 정확히 해석하려는 아비담마와 실제 수행체계인 위빠사나를 이어주는 수행 지침서입니다. 남방에서 아비담마를 중시하는 이유는 아비담마가 위빠사나 수행의 근본 골격을 이루는 완벽한 이론이기 때문입니다. 남방의 스님들은 아비담마가 위빠사나요, 위빠사나가 곧 아비담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기불전연구원이 지난 2002년 출간한 <아비담마 길라잡이>가 아비담마의 가르침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교학의 지침서라면 <청정도론>은 아비담마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에 적용되고 있는가를 심도 깊게 밝히고 있는 수행의 지침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초기불전연구원은 5월 18일 오후 2시 서울 송헌클럽에서 출간기념 법회 및 강연회를 개최한다. 이날 강연회에서는 각목 스님이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을 주제로 최근 확산되고 있는 수행과 명상에 대한 관심을 짚어 보는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붓다고사 스님 지음, 대림 스님 옮김, 초기불전연구원, 전 3권, 각권 3만원. (02)391-8579

여수령 기자 snoopy@buddhapia.com

## 무산선림 회원들의 ‘수행일기’ 엮보기



공짜입니다 무산선림 지음 무산본각 역음 바보새 | 9천원

“선생님, 수행교리는 얼마입니까?” “공짜입니다. 부처님도 제자들에게 대가를 받고 공부를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부처님의 법은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보물이

기에 수행교리는 누구에게나 공짜입니다.”

전남 목포에 자리 잡은 무산선림(無山禪林)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짜로’ 전하기 위해 문을 연 무산선림은 강의를 위한 특별한 장소나 사찰도 없다. 하지만 이곳에는 교사, 주부, 정신과 전문의, 아동미술가, 회사원, 학생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22명이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있다.

무산선림을 이끌고 있는 사람은 이윤현 씨. (주)선정의 테헤란 지사장과 주 이란 한국상사 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한 그는 이란·이라

크 전쟁이 한창이던 당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품고 귀국해 수행자의 길을 걷게 됐다.

이번에 펴낸 <공짜입니다>는 무산선림 회원들의 ‘수행일기’를 모은 책이다. 직업과 연령 심지어 종교까지 다양각색인 회원들이 처음 불교를 접하게 된 인연과 서울과 광주, 울산 등에서 야간열차와 심야버스를 타고 무산선림을 찾은 사연, 수행을 하고 난 뒤의 변화를 솔직하고 담담하게 펼쳐 보이고 있다.



### 새로 나온 책



■ <지장경> <관음경> <불유교경> (무비 스님·조현준 공역, 운주사, 각 7천원, 5천5백원, 6천원) = 조계종 교육원장을 역임한 무비 스님과 경북대 심리학과 조현준 교수가 함께 우리 말로 옮긴 ‘한글 경전 이해에 도움을 준다.’

■ <업서로 그린 그 진한 사랑> (신경림 외 지음, 웅진지식하우스, 9천8백원) = 신경림 시인과 소설가 조경래, 역사학자 이이화, 만화가 박재동, 철학자 윤구병 씨 등 열두 명의 ‘자녀’가 자신의 어머니 아버지의 인생과 사랑과 꿈을 진정한 글로 풀어내고 있다. 세밀화기인 이태수 씨의 꽃 그림이 담겨 있어 글맛을 더한다.

### ‘한국의 책 100’ 번역자 선정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위원장 이강숙) 산하 번역출판본부(본부장 진형준·한국문학번역원장)는 도서전에 전시될 ‘한국의 책 100’의 번역자를 지난 4월 28일 최종 선정·발표했다.

불교 관련 서적 중 <선가귀감>(영어)은 현각 스님이, <한국선사>(영어)는 김원중 씨가, <지눌의 선사상>(독어)은 황보정미 씨가, <석불, 들에 새긴 정도의 꿈>(서반어)은 서정희 씨가, <불어는 김수희 씨가, <백제금동대향로>는 김용권 씨가 각각 번역하게 된다. (02)732-1442

### 금주의 베스트북 10 책방 역시아름 집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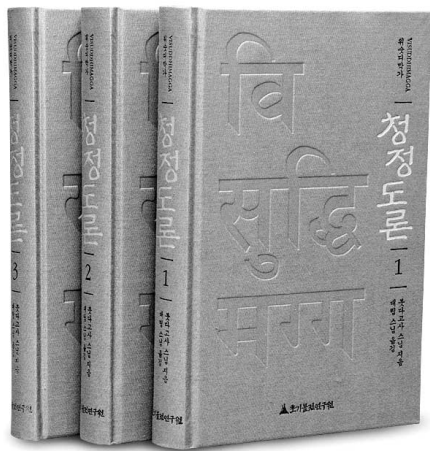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하룻밤에 읽는 불교	소운 스님	랜덤하우스중앙
2	불교의 수행법과 나의 체질	우룡 스님	휴먼리터
3	놓치고 있는 질문	현웅 스님	민족사
4	무문관상송	김광하	운주사
5	생활수행이야기	법상 스님	불광각
6	탁발한 스님의 금강경	탁발한	장경각
7	선 문밖에서	해탈 스님	역시아름
8	불교의 이해와 수행	조계종포교원	조계종출판사
9	백일법문	성철 스님	장경각
10	365일 부처님말씀	윤정광	동승동

■ <바로보인 선문열송 제4권 출간>  
『선문열송』은 세계 최대의 공안집으로서 1,454칙의 본 공안마다 여러 선사님들의 법문과 송이 달려 있다. 역저자인 대한문제연구소는 선문열송에 첨가된 도공문과 송으로 위모임을 휘둘러 법문의 참 의취를 숨어있는 공안창구의 깊이를 역활을 하였다.  
www.zenparadise.com  
02-597-2460 도서출판

# <청정도론> 원역 봉헌법회 및

## 각목스님 특강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

### <청정도론>



빠알리 삼장의 한글 원역을 근본 취지로 설립된 ‘초기불전연구원’이 개원한지 1년 6개월 여 만에 빠알리 삼장의 나침반격인 <청정도론>을 원역하여 上中下 세 권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역경불사를 위한 토대가 제대로 다져졌다고 자평하면서, <청정도론> 원역 봉헌법회를 열고자 합니다. 또한 이날 법회장에서는 각목스님의 특강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을 마련해, 최근 우리 사회에 확산되고 있는 수행과 명상에 대한 열기에 이론과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성스러운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열리는 뜻깊은 봉헌법회와 특강에 공사다망 하시더라도 부디 참석하셔서 축하해주시고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불기 2548년 5월

<청정도론> 원역 봉헌법회 추진위원회 황경환·임수희·오성식·이완기·김중복

- 주최 : 초기불전연구원
- 후원 : 불교방송, 불교TV, 대한불교, 법보신문, 불교신문, 주간불교, 현대불교
- 협찬 : (주)진양유조선
- 일시 : 불기 2548(서기 2004)년 5월18일(화요일) 오후2시
- 장소 : 한국일보사내 송헌클럽 대강당(12층)

# 청정도론

### 초기불전연구원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1동 311-6번지 수미정사내  
전화 : (02)391-8579  
홈페이지 : cafe.daum.net/chobul

1부(오후2:00~3:30 / 송헌클럽 대강당)

- 특강(오후2:00~3:00)  
놓치고 있는 수행의 핵심  
<각목스님:초기불전연구원 지도법사>
- 질의 응답(오후3:00~3:20)

2부(오후3:30~4:00 / 다과회장)

- 봉헌법회
  - 삼귀의
  - 반야심경
  - 인사말씀  
<대림스님:청정도론 번역자>
  - 격려사
  - 축사
  - 축하 케이크 절단
  - 사용서원

